# GOOD NEIGHBOR MINISTRY

<u>Vol.</u> 109/ July ~ September, 2019

**1.** 선한 이웃 선교회

www.goodneighbornj.org

## 신기한 일들이 펼쳐지는 곳

● 선택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아브람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 창 13:11-18

내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 영특한 뉴저지 버겐 카운티 엄마들 중의하나인 나는, 얼마 전 종영된 인기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여주인공들처럼 눈을 번뜩이며, 내 자식이 대학 가는데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으로 도움을 줄 봉사단체를 찾고 있었다. 요리조리 따져 보고 결국 마지막 선택을 앞두고 고민에 봉착하게 되었는데, 첫째는 '봉사를 방학 때만 몰아서 한 후에 봉사 시간을 왕창 받을수 있는 편리하고 실리적인 단체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1년 내내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귀찮고 불편한 봉사 후에 시간을 적립하게 해 주는 단체를 택하느냐'의 고민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의 선택은 후자였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물이 넉넉해 보이지도 않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지도 않아 보였던(창 13:10), 뭔가 깐깐하고 에누리조차 별로 없을 듯한 단체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단체가 바로 선한 이웃 선교회 앙상블이었다.

• 가끔은 억지로… (얼떨결에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 그러나 '골고다' 그 끝장을 보다.) - 마 27:32

처음 앙상블에 가입했을 때, 큰딸 아이는 학교 친구들이 많아서 아주 즐거워 했지만 작은 아이인 아들 녀석은 친구 하나 없다며 앙상블에 가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다. 자기 친구들이 있는 다른 음악 봉사 단체에 가고 싶다며 불평을 일삼았다. 매주 월요일 정기 연습 때 데리고 가는 것은 그나마 쉬웠다. 몇 시간 전부터 땡볕에서 대기해야 했던 추석 행사 연주 날, 아들 녀석의 입이 댓 발은 나왔던 모습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다. 그래도 기도 후에 선택한 단체였기에 억지로 데리고 다녔다. '억지로라도 한 번 몸담은 곳에서는 끝장을 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들 녀석이 점차 누나들과 형들과 친해져 갔고 지휘자님의 작은 관심에 앙상블 가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점차 횟수를 늘려 양로원 봉사를 다니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감사하고 기뻐하기 시작했다. 신기한 일이었다.

● 주의 뜻에 합당한 의도로 ··· (다윗의 인구조사와 하나님의 진노의 비밀) - 삼하 24:1-14

사실 선한 이웃 앙상블에 발을 담근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을 가는 데 필요한 봉사 점수를 받는 데 있었다. 다 같이 바쁘고 피곤한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봉사 를 다니는 데 드는 시간과 거리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 통령 봉사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시간을 더 채워야 하는지, 봉사 장소가 우리 집 에서 얼마나 가까운지 산수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어쩔 때는 그게 마치 죄짓 는 것 같아서 회개를 하곤 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다 보니 다윗이 하나님께 혼난 이유가 사람 숫자를 계수한 것 때문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쌓여 진 '은근 교만'과 '은근 자랑'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양로원에서 연주를 할 때, 엄마로서 나는 되도록 유심히 연주 를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아이들 연주를 보는 것도 좋지만, 양로원에 계 신 어른들의 반응에 나도 같이 동참하며 한곡 한곡 마칠 때마다 손뼉을 크게 쳐 주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양로원 봉사 때마다 연주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바뀌어 서 항상 완벽하고 멋진 연주를 할 수 없다. 유난히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온 날 과 그렇지 않은 날의 연주 상태는 아주 다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떤 연주에도 실 패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금 잘했다고 여겨지는 연주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봉사를 위해 양로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양로원 어른들을 위해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지하게 연주하는 동안, 가끔 정신 병동어른들이 질러대는 괴성과 박자에 안 맞게흥얼거리는 소리와 휠체어가 왔다 갔다 하는 정신없는 분위기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연주가 꼬일 때조차, 나는 웬일인지 그런 날오히려 더 기쁘고, 감사하다. 아이들 역시참기 힘든 냄새와 더위로 인해 땀범벅이 되어 가며 힘들게 연주를 마친 날에 더 보람을 느끼고 인내를 배우며 성숙해져 가는 것이 느껴졌다. 또한, 하나님께 합당한 아름다운 의도와 마음으로 연주하려고 애쓰는것이 느껴진다. 이것이 세상 연주와 다른오묘한 점이다. 그점이 참으로 신기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산법 (뒤늦게 포도원 들어와서 1시간만 일 하고 품삯 똑같이 받는 일꾼 보며 열 내는 사람 되지 않기!) - 마 20:1-16

봉사를 하다 보니, 어떤 학생들은 9학년 때부터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들은 11학년 때 입단하는 경우도 있다. 내 아이들경우가 그랬다. 하기 싫다는 아들 녀석은 9학년 때부터 들어왔고, 간절히 앙상블에 가입하기를 원했던 딸아이는 그 당시 플루트 정원이 꽉 차서 어쩔 수 없이 11학년 때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임원 한자리를 맡을 때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나는 어떤 식으로든 정성껏 봉사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우리는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 신다.'라는 말이 있다. 내가 머리로 계산 하지 않고 드릴 때, 하나님도 나에게 세상 선한 이웃 선교회 미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 님을 찬송 하리로다."(시편 146:1-2)

「미국 노인 복지 홈」중에서 우리가 흔히 양로원이라고 부르는 「널성홈」은 주로 육신의 기력이 쇠진하여 홀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처소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거처하는 집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 양로원인 「널성홈」을 방문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더불어 찬송을 함께 부르며 복음을 전하며 여러 모양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선한 이웃 선교회의 「평신도 양로원 선교사역」입니다.

#### Coming Events

6/20/2020(토) 7:30 PM 창립 21주년 기념 자선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Ridgewood, NJ

**Good Neighbor Ministry** 

P.O. Box 110 Closter, NJ 07624 Tel. 201-759-5688 goodneighborministry.nj@gmail.com

과 다른 기적의 계산법으로 은혜를 채우시는 분임을 나는 익히 내 삶의 많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혹시 앙상블에서 봉사하다가 내가 누구보다 더 고생하고 더 수고한 거 같은데도 별로 알아주지 않는다고 사람에게 서운해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오직 우리는 빌립의 이성적인 계산을 뒤엎으시고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랑 계산법만을 기억하면 된다. (요 6:7) 그 법, 진실로 신기하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x 3 오 크신 사랑~~ (복음성가)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짧은 노래인데 거기에 신기한 그분의 사랑의 스케일이 들어 있다. 나도 그 스케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선한 이웃 선교회이다. 이곳에 불러 주신 은혜가 참으로 신기하다.

Continued on next page...

Continued from previous page...

#### ● 글을 마치며

저는 2019년 이번 가을, 선한 이웃 앙상블에서 몇 년간 플루트로 봉사하고 난 후, 음악 교육학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딸 Grace Kim (김하은)과 현재 첼로로 계속 봉사하고 있는 아들 Wesley Kim (김영광)의 엄마입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를 통해 아름다운 섬김과 열정을 배우게 해 주심에 특별한 감사를 전합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가 한여름 날의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한겨울 날의 숮불같이 외롭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복음과 사랑을 계속하여 전하는 사역 감당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현 숙 사모 Christ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 단상 - Yesterday

지난 6월, 아이의 GNE 마지막 음악회 때 맨 앞줄 합창단 대기석에서 연주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같이 제게 사연 있는 곡들로만 프로그램이 짜여졌는지.. 기분 좋은 놀람으로 한곡 한곡 감상하다가 Yesterday를 듣는 순간, 눈물이 글썽이며 지난 3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는 늘 위로부터의 시선으로 아이와 그의 음악을 바라보며 지적을 해대곤 했지요, 지금 와서는 많이 후회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급할 게 없는 제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그 성격대로 늦게 찾아온 사춘기를 겪으며 제게는 낯선 모습으로 서서히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제법 하던 첼로였지만 점점 활을 잡는 횟수가 줄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칫악기를 놓아버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우리 GNE 오디션 한번 볼까? 주말에 양로원으로 음악 봉사를 가는 단체래." 마뜩잖아 하는 아이의 손을 끌고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유난히 한국에 계신 양가 할머니들을 따르고 좋아했던 아이가 첫 번째 양로원 봉사를 갔다 와서 "엄마, 할머니들이 웃으시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손뼉을 쳐주시는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국에 계신 할머니께 연주해 드린다생각하면서 열심히 할래."라고 말했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후로도 학교 공부가 바쁘거나 다른 일에 열중해서 주말 봉사를 빼먹기도 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바쁜 학교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시간을 안배하는 법을 배워갔고, 매주 월요일의 리허설과 주말봉사는 점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친구 만나는 재미에, 피자 파티에, 상장받는 뿌듯함에….

함박눈이 펑펑 내리던 겨울날, 어머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향했던 필라델피아 빈민가에서의 연주 봉사. 클래식 음악 연주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망울과 핫초콜릿을 처음 마셔본다는한 흑인 소녀의 말에 잠시 다른 세상을 본듯한 아득함과 함께 짠한 마음이 밀려왔던 일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들과 함께 격주로 봉사하던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찬양집 페이지를 넘겨드리며 맞췄던 눈길, 맞잡았던 주름투성이의 손…, 가족분들의 요청으로 임종이 임박한 할아버지의 병실로 가서 연주를 해드렸더니 의식이 거의 없으심에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던 일….

자유롭게 출타하시지 못하는 연로하신 분들께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

## 약속의 가을

아침 나무 속으로 날아 드는 새를 보고 알았다 가을이 코 앞에 왔다는 것을 제 한 몸 던져 맞는 계절 나무들이 하나 둘 제 잎을 털어낸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과 손가락을 걸었구나 길을 알고 여름과 결별하는 손들

자신을 버리고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은 아름답다

김 은자 권사/시인

사람이 있다는 것, 곁에 있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 이 되는데, 하물며 찾아가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 가 있는 일입니다.

경쟁만을 생각하며 음악을 할 때의 악기 소리는 우리의 신경처럼 날카로워지고 음악을 통해 위안을 얻기보다는 스트레스만 쌓여갑니다. 때로는 남들이듣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연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설정한 높은 잣대 때문에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 아이도 GNE에 들어오기 전에는 경쟁을 위한음악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힘을 빼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음악은 뽐내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할 때보다 많은 사람과 좋은 시간을 나누고, 맘에 위안을 주고받으며 달란트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때 훨씬 값지다는 것을 저나 아이나 몸소 느끼게 된 GNE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귀중한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음에 큰 감사를 드리며, GNE가 언어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direct 하게 전달되는 음악의 힘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랑을 전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느님 뜻에 맞갖는 단체로 길이 길이 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GNE 에서 봉사하면서 맛본,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줄 때 느끼는 행복을 가슴에 간직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달란트를 이웃과 나누면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빛과 소금 같은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윤효정

선한 이웃 앙상블 학부모

## **Nothing but Gratitude**

Walking through the sliding doors, I was once again hit with the heat of the nursing home. I walked up the stairs dripping tears of sweat, yet excited to complete my biweekly activity. Each visit to the nursing home has illuminated the idea for me that the medium of music brings both the performers and the listeners together in that multipurpose room, concert hall, school auditorium, or wherever we perform. We may be on one side performing while the elderly spectate and listen from the other, yet in that moment, we become a community united by music.

GNE has been a huge part of my life for the past three years, and I cannot imagine where I would be without it. I have not only established a strong connection within our ensemble, but also with the elderly we perform for. Although we play at different nursing homes throughout the year, one thing is similar all throughout: each and every elder, no matter how they are at the start of the concert, is brighte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cert. Whether their mouths stretch from ear to ear or their hands hit against each other in a constant motion, the overall atmosphere of the place is happier after being exposed to our performance. Witnessing this tangible difference is the sole reason why I strive to be a better version of my musician self, not only for myself but for others who need music in their lives.

I've also had the incredible honor of being concertmaster for two years. I've had the opportunity to build and strengthen leadership skills, thoroughly establish a sense of previously nonexistent patience, and reveal the true power of music. As a leader, it is my responsibility to make sure everyone is together in musical aspects, and more importantly, in spirit. I not only fell in love with performing for the community around me, but also serving. Through the bimonthly nursing home performances, I realized how much of a positive impact I could confer on someone from just a mere stroke of my bow. To be frank, there were a number of challenges I faced, however despite the busy schedules and unavoidable obstacles, I learned to constantly focus on dedicating a part of my week for the betterment of others over myself.



Celebrating Good Neighbor's twentieth anniversary last June was bittersweet to say the least, yet all I could feel in the present was pride- a shared aura of pride- amongst everyone in the church. Yes, some of us were proud that we got through Tchaikovsky while others were proud of the way their child performed Elgar, yet one reason of pride remained alike: we were all proud of everything GNE has achieved thus far.

I've been blessed to be a part of a family who I know will always be there for me no matter what. Although it saddens me that my time in the ensemble has come to an end, I know that my time in the ministry has just begun. As I step into the next chapter of my life, I not only leap with long lasting friendships and cherishable memories, but also with the goal of being a true good neighbor, in places more than one that is close and dear to my heart.

> Sally Han/Good Neighbor Ensemble Concertmaster 2017-2019 Cornell University

## 장막금 수여자의 감사 편지

Dear donors of the Good Neighbor Ministry,

As my graduation from high school took place last night, I am officially moving on to the next chapter of my life. I wanted to take this time to say a brief thank you to everyone in the Good Neighbor Ministry for being a part of my life these past 6 years. I not only got to do what I love, play music, but I learned what it truly means to be a Good Neighbor to my community. Although I was young when Ms. Myung Shin Kim first asked me to become a part of the family she cherished, I will never forget the first time she greeted me with a smile as I became a new member of the Good Neighbor Ensemble.

These past few years with the Ministry have gifted me unforgettable memories and most importantly, a group I will forever be able to call my second family. Although I have not been able to meet everyone in the Ministry during my time here, I am able to go on knowing that I have a family connected by God's Love and Grace supporting me every step of the way. I want to say a final thank you for everything the Ministry has done for me and my family and I hope the future will bring remarkable things.

Best wishes,

Daniel Seog/GNE Scholarship Award Recipient North Western University



























4 Good Neighbor Ministry Newsletter Vol.109





















## 선한이웃선교회 사회공로상 수상

창립 기념 20주년을 맞이한 선한 이웃 선교회는 올 여름 **뉴저지 한인 경제인 협회(NJKACC)**로부터 사회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 상식 때 전한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발길 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서로 동역하 여 열약한 이웃을 함께 돌보는 모든 봉사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 Dear President Lee.

I am honored to accept the Community Service Award of New Jersey Korean-American Chamber of Commerce and humbled by your kind recognition. The old wisdom says that you are only as good as the company you keep and indeed the reason why I have the privilege of this recognition today is because I am surrounded by incredible people who are committed to care and support their neighbors. Therefore, I share this great honor with all the members of Good Neighbor Ministry.

It's been my great joy serving in the ministry over 20 years, providing companionship to the elderly through a time of Christian Worship, musical concerts, and fellowship. The ministry began with only 4 volunteers in 1999 and today we serve in 25 nursing home facilities in Bergen and Passaic county and over 1000 people praise and Worship weekly with our volunteers.

Our mission of service extends beyond the borders of our community. Through the Good Neighbor Ministry's annual benefit concerts, we have supported orphanages and medical clinics in Haiti, assisted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music education in Jordan, and contributed funds to many missionaries overseas. It is our goal, through our partnerships, to continue to effect positive change in our local and global community.

I am truly grateful to know that there are valuable organizations like NJKACC that promote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st the community organizations to achieve a better future for all.

Once again, I would like to express my most sincere appreciation for this kind recognition!

With gratitude,

Joon L. Chung President of Good Neighbor Ministry





## 선한 이웃 찬양집 기중식 New Bridge Hospital Chapel



지난 8월 Bergen New Bridge Medical Center에 있는 Chapel에 선한 이웃 선교회의 Praise The Lord! 책을 35권 기증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병원 Senior Chaplain으로 근무하신 Bishop C.V. Singletary는 선교회의 Praise the Lord! 책을 사용하여 환자들과 매주 예배를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걸스카우트 학생인 Nicole Lieberman은 책을 Digital file로 만들어 프로젝터를 사용하여 찬양과 예배를 좀 더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 선교회의 Praise the Lord! 책이 더욱 귀히사용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 Dear Joon Chung,

My name is Nicole Lieberman. I am part of Venturing Crew 228 and I am working on our Summit Project. The Summit is the Venturing version of the Eagle. My project is putting in a video system in the chapel at Bergen New Bridge Medical as a way to help the members follow along better. Some of them can't hold the books or read so I think that putting the things on the screen they would be able to see it better. It would make it easier for them. I am doing all religions with these projects to make sure everyone is included in services. I am have noticed that some of the religions need news materials. Like books for those that wish to read and see close.

This is a service project. Everything I am doing volunteers and to help the community. So if you want to help and donate anything that would be great.

This project includes a pull-down screen and a project that will be instilled in the chapel. Any other materials that the religious leader that they think they will need for the members. If you have any questions. Don't be afraid to email me.

Thank you for your support,

Nicole Lieberman

#### 선교회 소식

- ◆ 9월 3일부터 2019년 하반기 사역이 재개되었습니다. 각 양로원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팀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섬김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 여러분의 후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내년에 열리게 될 창립 21주년 음악회의 장 소와 일정이 아래와 같이 정해졌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창립 21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June 20, 2020,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 2019년 선한 이웃 선교회 고 김명신 장학금 수여식이 지난 6월 15일 창립 기념 자선 음악회에서 있었습니다.

장학금 수여자: Aaron Rhee, Danyoung Kim, Sally Han, Grace Kim, Daniel Seok

- ♦ 선한 이웃 선교회 요르단 선교 내용을 담은 "Sound of Music in Jordan" 영상이 미국 각 지역 영화 페스티벌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해당 영상은 Good Neighbor Ministry YouTube Channel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 ◆ 여름방학도 없이 묵묵히 매주 섬겨 주시는 New Bridge Medical Center 정신 병동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에 도움을 주신 분들】

- ♦ 연주: Eilene Lee(Violin), Noel Cho(Cello), Joo Un Lee(Violin), Daniel Son(Viola), Jung Young Kang (Tenor), Sujin Kang (Soprano), Good Neighbor Ensemble, 김동민 지휘자, 김순희 지휘자, 박민경 집사, GNM 봉사자 합창단
- ♦ 장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 ♦ 녹음 및 녹화: Al Semler, Robert Holloway
- ◆ 포스터, 프로그램: 정인애 / 비디오 영상: 정찬미
- ◆ 과일: 정구임 권사 / 음료수: 앙상블 자모회

#### 【음악회 후원】

정구임/최재성, 서연희/서성원(Farmers Market), 임미영(Pioli), 정혜령/정해양(정내과), Joon Chung/Paul Kim, 김순희/정광현, 윤희 주/윤정현, 송희수/송창두, 이수진/백철원, Kenny Yoon, Thomas Kim, Michael Baek, Jeannie C. Hwang, Amy Chung/Joon-Young Chung, 박광자/양호식, 윤민소/윤명현, 김윤주/K.T. Son/ Daniel Son, Yoon Joo Cho/Eon Soo Lee/Joo Un Lee, 김학영, 이종희, Paul A./Rosalie A. Hoelscher, Rev. Diane L. Rhodes, Jae H./Joanna Myung, 김은영/김명기, Kijoon Kim/Haejung Chung, 정인애, Joseph Chung 산부인과, 고운이 치과, Good Care Dental, Ridgewood Dental, Clearview Eye Surgery (John Kim, MD), Steve Y. Kim이비인후과, Kim & Bae, P.C., Main Violin, West Violin, Imoga Inc., 별약국(Caf RX), Sunrise of Paramus, Buckingham Care & Rehab., Armenian Nursing & Rehab., 머릿돌 교회, 뉴저지장로교회, 베다니교회, 아<del>콜</del>라교회, 초대교회, Corner Stone Church, Joy Christian Fellowship, 아.이.야. 구역, 앙상블 자모회

- ◆ 음악회 총 수입: \$32,773.- / 총 지출: \$27,256.<u>13</u>
- ♦ 해외 선교 보조: 아이티 의료/학교 보조, 순회 선교, 요르단 음악 교육, 영상 선교

#### 후원해 주신 분들(2019년 5월 ~ 2019년 8월)

베다니 교회, Joy Church, 초대교회, 정혜령, 송희수, 임미영, 서연희, 정구임

수입: \$2,300.00 지출: \$4,712.79

† 양로원 사역을 위한 기도

- 노인들의 영육간의 강건과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 봉사하는 분들과 후원하는 분들의 건강과 가정, 사업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단원들을 위한 기도
- 선한 이웃 앙상블 졸업생과 신입단원을 위한 기도

#### †예배 인도자들을 위하여

권 사: 김학영, 박경옥, 서연희, 양승화, 이명옥

장 로: 박성길

집 사: 김진옥, 정준임, 정종은, 조미경, 이미혜, 김은수, 최영준, Brenda Cho, Maria Kim, Jeannie Hwang, Paul Dunn, Susan Lee, Sue Lee, Hyunmee Kaylie Lee

전도사: 이승진, 이에리사 사모, 에스더 양, 설국환 Metro Church Member

† 선교사를 위하여

박문희 집사 (중국 선교) 김성은 선교사 (아이티) 김재문 / 김유진 선교사 (요르단) 양부환 / 양수정 목사 (파라과이)

† 건강을 위한 기도

오알리(소아 당뇨), Soo Park(건강 회복), 문행희 집사(관절), 서을옥 권사(건강 회복), 김종헌 목사(건강 회복/부모 건강), 박미성 자매(교통사고 회복), 서성원 집사(척추수술 회복), Brenda Cho(관절), 김학영 권사(어지럼증), Jeannie Hwang (모친), 정은영 사모(건강 회복), 박경옥 권사(건강 회복), Sean Lee(건강 회복)

※ 양로원 사역 봉사에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바랍니다.

❖ 선한 이웃 선교회 소식지: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마음을 담은 여러 사연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원고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선교 회원 동정

- ♦ 선교: 8월 이문웅 장로/이명옥 권사 콰테말라 선교 • 7월 김영선 권사/김기선 집사/정인숙 집사 콰테말라 선교
- - 강팔복 집사님의 여동생 김정복 집사님께서 8월 주님의 품에 안기셨 습니다. 유가족에게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Jeannie Hwang자매님의 아버님 김윤태님께서 8월 27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에게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정준임 집사님의 어머님 이영빈 권사님께서 9월 10일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유가족에게 부활의 위로를 드립니다.
- ♦ 연주

#### 정선분 자매 바이올린 연주/Chamber on Main

Date: Friday, September 6 at 7:30 PM Place: 400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 김동민 지휘자 연주/NYCP-Beethoven & Bartok

Date: Friday, September 27, 8 PM

Flushing Town Hall (137-35 Northern Blvd Queens, NY)

Date: Saturday, September 28, 8 PM W83 Auditorium (150 W 83rd Street, NY, NY)

Date: Sunday, September 29, 2019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reet, Ridgewood, NJ)





	_	O
선	Ш	

선교회 정규 활동 일정				
Day	Place	Volunteer		
월	Alaris Health at Rochelle Park	정준임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uckingham at Norwood (1 st Fl.)	서연희 권사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이문웅 강로(색소폰)		
	Oradell Health Care Center	김은수 집사 인도, Paul Dunn (말씀), 박지선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 장병찬 집사 (드럼)		
	Sunrise of Old Tappan	김학영 권사 인도, 김주연 집사 반주, 송재현 목사(클라리넷), 정은영 사모(플룻)		
화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View	이에리사 사모 인도, 김현정 집사 반주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Maria Kim 선생 인도, 박가희 권사 반주		
	Sunrise of Cresskill	Sue Lee 집사인도, 강희집사반주, 이문웅 강로(색소폰)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Susan Lee 집사 인도, Josiah Chung 목사(말씀),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한소망 요양원			
수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Norwood	설국환 전도사 인도, 한아정 집사 반주, 윤선구 강로(클라리넷), 정병찬 집사(드럼)		
	County Manor Rehabilitation & Healthcare, Tenafly	이명옥 권사 인도, 홍동기 박사(말씀), 강마리 권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Sunrise of Paramus	정준임 집사 인도, 에스더 양 전도사(말씀), 강승연 집사(반주), 박지선 집사(플룻), 임선숙 집사(바이올린)		
	Brookdale Emerson	조미경 집사 인도, Maya Lee 반주		
목	Armenian Nursing & Rehabilitation	Maria Kim 선생 인도, 한승은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Atrium Post Acute Care of Wayne	김진옥 집사 인도, 최애경 권사 반주		
	Bergen County Health Care Center Rockleigh	Brenda 조 집사 인도, 이수지 집사, Soo Park 선생/Nancy Cho 집사 반주		
	Buckingham at Norwood Care & Rehabilitation Center, 은혜양로원	이명옥 권사 인도, 이윤희 선교사(말씀), 문행희 집사/유성유 집사 반주, 이문웅 장로(색소폰)		
	Oakland Rehabilitation & Healthcare Center	김영선 권사 인도, 이혜림 집사 반주		
	Woodcrest Health Care Center, New Milford	이승진 전도사 인도, 윤주영 집사 반주, 윤선구 장로(클라리넷)		
금	Atrium Post Acute Care of Park Ridge	Hyunmee Kaylie Lee 인도, 박수연 집사 반주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이미혜 집사 인도, 김순희 권사 반주, 설국환 전도사(말씀)		
	CareOne at Valley, Westwood	정준임 집사 인도, Soo Park 선생 반주, 이문웅 장로(트럼펫)		
	New Bridge Medical Center 내 정신병동	서연희, 양승화 권사 / 최영준 집사 인도, 한정아 집사 반주, 김여진 선생(바이올린), 이문웅 장로(트럼펫)		
	한국요양원5동	박성길 장로 인도, 신지연 자매 반주		
일	The Lillian Booth Actors Home	Metro Church Member		

#### 앙상블 단원 동정

- 1. Joseph Lee(Vc.): Arco Music Camp
- 2. Sebin Bok(Vn.): Saarbur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and School, Saarburg, Germany.  $7/15 \sim 29$
- 3. 졸업을 축하합니다: Hee Soo Bok, Sally Han, Danyoung Kim, Grace Kim, Sean Kim, David Kwak, Jennifer Lee, Jessica Lee, Sean Oh, Peter Park, Daniel Seog, Jodie Suh, Irene Yi
- 4. 신입단원: Rachel Bae, Lorien Cho, Jason Han, Ashley Kim, Claire Kim, Marcus Kim, Rachel Kim, Jiah Lee, Ashley Park, Brian Park, Daniel Song

#### **Myung Shin Kim Memorial Scholarship Awards**

선한 이웃 선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 단체, 그리고 기도 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 동역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학 재단에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 십시오.

• Payable to: Good Neighbor Ministry

• Memo: Scholarship Awards

• Mail to: Good Neighbor Ministry

P. O. Box 110 Closter, NJ 07624

#### 후원해 주신 분들

Paul Kang, Debora Kim, Joon Chung/Paul Kim, 정구임, Kenny Yoon, 김민정/김민영

수입: \$11,300

총수입: \$45,175 총지출: \$24,000(장학금 수여)

## 앙상블 특별 활동 행사 일정

9월 21일 (토) 4:00 PM 뉴저지 추석대잔치 @Overpeck park

9월 28일 (토) 2:30 PM CareOne at Valley, Westwood

9월 29일 (일) 10:45 AM Atrium Senior Living of Park Ridge

10월 12일 (토) 3:00 PM CareOne at The Cupola, Paramus

10월 13일 (일) 11:00 AM Sunrise of Old Tappan

10월 14일 (월) 2:00 PM Buckingham at Norwood

10월 26일 (토) 2:00 PM Brookdale Emerson

11월 09일 (토) 2:15 PM Oakland Rehab. & Healthcare Center

11월 10일 (일) 11:00 AM Sunrise of Paramus

11월 23일 (토) 2:00 PM CareOne at Oradell

### 선교회 특별 활동 행사 일정

2020년 6월 20일(토) 7:30 PM 선한 이웃 선교회 창립 21주년 기념 자선 음악회 West Side Presbyterian Church 6 South Monroe St., Ridgewood, NJ 07450